

##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

2013년 라디오 강론(요한계시록)

### 30. 다섯째 인 순교자의 호소(2)

2013. 07. 28.

금빛새벽 진리와 은혜의 시간을 애청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다섯째 인을 다 살피지 못했습니다. 계속하여 살피고 시간이 되면 여섯째 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입니다.

[계6:9~17]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10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1. 목사님, 지난 시간에 순교자들이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재라고 부른 그 칭호에 대하여 설명하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구절을 말씀하셔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답: 다음 구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인데, 먼저 설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는 질문부터 이야기해야 되겠지요. 이 말씀을 표현된 대로만 보면 복수를 부탁하는 말이잖습니까. 그런데 순교자들이 요청하는 복수가 형벌일까 하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호소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그런 호소에 대담으로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아직 잠시 쉬어라.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흰 두루마기는 사데 교회의 흰 옷이나 24장로들이 입은 흰 옷이라는 말과 다른 표현인데요, 거기는 모두 “히마티온”입니다. 그냥 입는다는 말에서 나온 명사인데 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순교자들에게 주는 흰 옷은 두루마기입니다. 이 말은 “스톨레”인데요, 이 두 말이 의미상으로는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스톨레를 쓴 것은 특별한 상급과 관련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두루마기는 어떤 구별된 표로 입는 긴 예복이라고 합니다. 이상 중에 요한은 각각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는 ‘영혼들’을 보았을 때에 그들이 세상에서 정치권력에 의하여 불명예스럽게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이 평안한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은 성도들과 구별되는 순교자들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교자들은 우리 같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은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2. 당연히 그럴 것입니다. 우리말로도 옷과 두루마기로 번역했으니 구별이 됩니다만 지금 설명한 그런 의미까지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를 확실히 인정하신다는 보증이군요. 당시로 생각하면 네로 황제 때의 핍박과 또 도미시안 황제의 핍박으로 많은 사람이 순교했을 텐데요. 이 보증은 고난 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겠습니

다. 그런데 다음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는데, 목사님께는 어렵지 않겠지요?

답: 다음 구절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는 말씀이지요. 어려운 말씀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어렵다고 말했지요. 아직 잠시 동안이라는 말은 세상의 시간적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루셔야 할 일이 아직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때까지 편히 쉬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14장에도 나오는 말씀이지요.

[계14:13]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쉴 것이고 그 행한 일이 그들을 따를 것이라고 했는데, 역사적 시기는 다르겠지만 허락된 보상은 비슷한 내용이지요. 순교자들은 그때까지 쉬고 있습니다. 의식도 활동도 다 쉬는 것이지요. 잠들어 있는 동안은 참으로 평안에 들어가서 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7:1,2이 보증한 말씀입니다.

[사57:1,2]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2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그리고 그들이 쉬는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 그 내용이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이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순교자들의 수가 차 때를 기다린다는 뜻이 되는데요, 과연 그런 뜻일까 하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본에는 ‘플레로도신’ 즉 ‘완성되었다’로 되어 있어서 미래부정을 나타내는 부정 과거 가정법으로 해석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가득 차게 될 것’이란 의미가 되는데, 우리 번역처럼 수가 차기까지라고 번역해야 되겠지요. 즉 가득 차게 되기까지라는 뜻이니깐요. 즉 하나님의 섭리로 어떤 특정한 수가 순교를 당하도록 정해졌다는 뜻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지요. 이것은 사단의 활동 계획의 본질이 충분히 입증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롭고 영광스러움이 나타나는 데는 일정한 시간이 경과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즉 ‘순교자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명을 다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단어는 ‘플레로-’인데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성취될 때까지 쉬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 검은 말 특히 청황색 말이 활동하는 시대동안 고난당한 성도들, 순교당한 성도들이 흰 두루마기를 받을 것이 확실한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충만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고 있으라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인데, 이것은 이미 순교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보다는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는 말씀으로 순교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대가 바로 청황색 말의 시대, 곧 두아디라 교회 시대가 끝날 무렵부터인데, 1755년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섯째 인을 뿔 때에 큰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이 바로 여섯째 인 시대를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때까지가 다섯째 인 시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큰 지진이 일어났을 때가 1755년이니까요.

3.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의 사건의 설명은 끝이 났군요. 이제 여섯째 인으로 넘어가서 말씀을 나누어야 하겠네요.

답: 예, 여섯째 인에 대한 기록을 읽은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합시다.

[계6:12~17]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같이 땅에 떨어지며 14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우매 15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16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17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섯째 인을 떼시니까, 큰 지진이 나고 이어서 해가 총담 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또 별들이 선무화과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처럼 말리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천연계에 일어날 사건들이지요. 학자들은 이것이 실제적인 사건일까? 상징적인 것일까 하고 고민하지요. 그런데 예수께서 세상 끝에 있을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이와 비슷한 천연계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천연계에 일어날 실제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도 비슷한 현상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들을 먼저 찾아보기로 하지요.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에 지진에 대한 것은 없어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계시록과 동일하지요.

[욘2:10]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욘2:30,31]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1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욘3:15]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요엘서의 이 말씀에는 계시록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는 것은 지진을 가리키고 일월이 캄캄하고 별이 빛을 거두는 것이 계시록과 같습니다. 이런 구약의 예언과 예수께서 친히 하신 예언에 비추어서 여섯째 인을 떼 때에 있을 천연계 현상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4. 그렇다면, 목사님, 그런 일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을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입니까?

답: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하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에 준해서 생각하면 대답이 쉽게 나올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마태 24:29을 읽어봅시다.

[마24:29]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은 그 날 환난 후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무엇인지 알면 천연계에 이런 현상이 언제 있을 것인지 그 때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 환난이 언제 있을 것인지 불가불 이야기해야 되겠습니다. 마태24:21~24입니다.

[마24:21~24] 이는 그 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22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23 그 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24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큰 환난이 있을 때를 말씀하셨는데, 창세로부터 그 환난이 있을 때까지 그런 환난이 없는 큰 환난입니다. 당연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도 그런 환난이 없었지요.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때로부터 미래에 있을 환난입니다. 예수께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환난이 있을 후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소문이 많이 들릴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택한 자라도 미혹할 수 있으면 미혹하겠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유의할 것이 바로 “그 날들을 감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환난은 짧은 기간에 있을 환난이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 환난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을 만큼 기간이 길 것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짧은 기간이라면 여기저기 도망가서 피하다가 그 기간이 지나면 다시 나타나면 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사람들의 일반적인 수명보다도 긴 기간이면 피하기도 쉽지 않고 또 오래 계속되기 때문에 환난이 계속되는 기간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환난이 닥칠 것입니다. 날들을 감한다는 말씀은 환난의 기간이 오래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예언된 천연계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환난은 환난과 핍박의 정도만이 아니고 기간에 대한 것이 이 예언의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목사님 말씀으로 보면 그 큰 환난은 그 기간이 전무후무하도록 길 것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답: 그렇습니다. 창세 이후로 그 환난 전에도 그런 환난이 없었고 그 후에도 없을 환난이거든요. 환난과 핍박이 극심하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가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 환난은 역사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번 있었습니다. 로마제국의 10대 환난만 해도 엄청났지요. 네로 때의 환난, 도미시안 때의 환난, 그리고 디오클레시안 때까지 있었던 10년간의 환난은 아주 극심한 환난이었습니다. 화형, 또는 산채로 맹수에게 던져지는 것, 십자가형 등등 모두 극심한

핍박입니다. 그렇더라도 최종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의식이 있을 동안 고통의 정도가 다를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환난이 오래 계속된다면 아마도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난 기간을 단축 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구원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시겠다는 보증이지요.

6. 그런 환난이 미래에 있을 것입니까 과거에 있었습니까?

답: 긴 기간으로서 환난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7. 그렇습니까. 언제 그런 환난이 있었습니까?

답: 이 환난 기간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때 두 때 반 때 기간입니다. 그것은 작은 뿔의 전성시대인데, 그것은 세상에 있는 진리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며 죽이는 것 외에 예수님께 직접 도전하여, 하늘 성소를 헐고 예수께서 행해야 하는 매일의 봉사를 제하고 작은 뿔이 스스로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마음대로 형통하게 행하면서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을 핍박한 기간입니다. 이때는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이 진리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에 극심한 환난인 것입니다. 그런 기간이 1260년간이니까 엄청 긴 기간이었지요. 아직도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서서 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자세히 이야기 나눌 것입니다.

8.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한 때 두 때 반 때, 또는 1260일이라고 한 그 기간을 뜻하는 것이군요. 그 시작이 동로마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 감독이 모든 기독교의 수장이라는 칙령이 실효적으로 실시된 해인 538년부터 교권로마의 수장이 폐워된 1798년까지를 뜻하는 기간이라는 말이지요?(예, 잘 상기시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즉 1798년에 천연계에 계시록에 예언한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까?

답: 그런데 예수께서 그 기간을 감한다고 하셨지요. 즉 1260년이 딱 채워지지 않겠다는 뜻이잖습니까. 실제로 그 환난 기간에 극심한 핍박을 피하여 청교도들이 핍박의 땅인 유럽을 떠나서 신대륙으로 피난했습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기초로 한 국가를 건설하였지요. 그것을 헌법에 명시했습니다. 그때가 1776년입니다. 곧 종교와 신앙의 자유의 나라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그때 그 환난을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약 22년이 단축되었습니다. 그만한 세월을 감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종교와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미국으로 오면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계시록은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있기 전에 큰 지진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는 일이 1776년이 지난 후 그리 멀지 않은 때가 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진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이 1780년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그날이 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름에는 월식이 생길 수는 있어도 일식은 생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780년 5월 이전 어느 때에

일어난 큰 지진이 바로 예언된 지진인 것이 맞겠지요. 그것도 작은 지진이 아니고 큰 지진입니다. 요엘은 땅이 진동한다고 했지요. 그것을 역사에서 찾아보면 1755년 11월 1일에 있었던 포르투갈 리스본에 있었던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그 후에 1780년까지 그런 큰 지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은 1755년에 시작된 것이지요. 다섯째 인 시대가 1755년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와 모든 연대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렇게 여섯째 인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천연계 현상으로 그 시작점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언된 천연계 현상이 이 지구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어났습니다. 즉, 해가 총담 같이 어두워지는 일, 달이 핏빛 같이 되는 일, 별들이 떨어지는 일 등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실에 의해서도 일곱 인이 역사의 종말에 한꺼번에 몰아서 일어날 환난에 대한 것이 아니고 흰 말이 이기고 이기려한 때로부터 역사적으로 연이어 진행되는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여섯째 인을 뿔 때에는 천연계에 징조로서 예언된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9. 총담이 무엇이지요? 어려운 말 같습니다.

답: 총담은 말총으로 짠 천인데, 원문은 '사코스 트리키노스'입니다. 사코스는 질이 별로 좋지 않은 천이고 트리키노스는 머리털입니다. 그러니까 머리털로 짠 천이라는 말이지요.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완전히 캄캄해져서 전혀 빛을 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1780년 5월 19일에 미국 동부 뉴잉글랜드 지역에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문학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냥 암흑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웹스터 사전에도 암흑일이라는 항목에 그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요즘도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인터넷 위키백과에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그때 캐나다에 엄청난 산불이 나서 그 연기와 또 뉴잉글랜드 지역에 짙게 덮인 안개와 합해서 그런 현상이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아무튼 그것은 암흑일이었습니다. 완전한 흑암이라서 낮에도 촛불을 켜지 않으면 안 되었고, 다음날 저녁까지 그랬다고 합니다. 그것이 캐나다에 산불이 나서 그렇게 되었든지, 천체에 이상 현상이었든지 상관없습니다. 큰 환난 후에 그런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한 그 예언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은 확실하지요.

10. 목사님, 그것이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일식도 많고 또 별이 떨어지는 것 같은 현상은 요즘도 종종 있고, 지진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큰 지진도 자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진이나 해가 어두워진 것 등이 계시록 6장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답: 참 물을 만한 것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보니까 오늘 그 대답할 여유가 없군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하기로 하지요. 아무튼 여섯째 인을 뿔 때 순교자들의 호소를 계시적 상태로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도 충성하는 신자와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진리대로 신앙하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의 계시를 통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보상을 잘 가르쳐주셔서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성령의 역사로 이기고 충성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